

해외의약뉴스

항우울제 셀렉사(Celexa)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불안감을 보이는 알츠하이머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험군은 항우울제인 시탈로프람(citalopram)의 복용량을 하루 최대 30mg까지 증가시켜 복용했으며, 대조군은 위약을 복용했다. 그 결과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의 약 40%가 상당한 안정을 보였으나, 위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26%만이 상당한 안정을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키워드

알츠하이머, 항우울제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항우울제인 셀렉사(Celexa)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겪는 불안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항정신성약물의 안전한 대체약물이라고 밝혔다.

Alan Manevitz 박사¹⁾는 “불안감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증상 중 하나이다. 또한 불안감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심장병과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 항정신성약물은 일반적으로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되지만 한편으로 알츠하이머환자들의 사망위험이 높은 것과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안전한 대체약물이 반갑다.”고 전했다.

이 연구는 Constantine Lyketsos 박사²⁾의 주도로 실시되었으며, 실험에는 정서적 고통, 공격성, 과민성, 과도한 행동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알츠하이머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연구는 9주 동안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실험군은 항우울제인 시탈로프람(citalopram)의 복용량을 하루 최대 30mg까지 증가시켜 복용하였고, 대조군은 위약을 복용하였다. 시탈로프람(citalopram)은 브랜드네임 약인 셀렉사(Celexa)와 씨프라밀(Cipramil)의 제네릭이다.

약을 복용한 실험군에서는 불안감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환자 보호자가 스트레스가 적었다고 보고했다.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의 약 40%가 상당한 안정을 보였으나, 위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26%만이 안정을 보였다.

그러나 항우울제의 복용은 위험성이 따른다. 연구에 의하면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정신 기능이 약간

1) 뉴욕 레녹스 병원 임상심리학자

2) 미국 Johns Hopkins 기억력 및 알츠하이머 치료센터 소장

감소하며, 비정상적인 심장활동이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Lyketsos 박사는 “항정신성약물 또한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시탈로프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항정신성약물은 뇌졸중이나 사망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 시킨다. 연구에 사용된 투약량보다 적은 양의 시탈로프람은 항정신성약물보다 더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환자의 불안감을 비의약품 치료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면 좋은 치료방법이 없다. 항우울제가 다른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꽤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enavitz 박사는 “항우울제나 다른 약의 사용에 대한 효과성 대비 위험성에 대한 접근은 각각의 환자에 따라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 의약품은 많은 급성환자치료(acute care)를 위해 단기간 필요하고, 돌보는 환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odore Strange 박사³⁾는 “우울증과 불안감을 동반한 치매에 효과가 있는 치료는 그 자체의 부작용 우려 때문에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항우울제인 시탈로프람(citalopram)은 불안장애에 미미한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있는지 관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미국국립의료원(U.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으며 연구결과는 2월 19일자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게재되었다.

■ 원문정보 ■

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44675.html

3) 뉴욕 Staten Island 대학병원 노인전문의